

“철강 관세 면제해 달라”

日, 미국에 요청...“관세조치 조사하며 필요한 대응” 대미 철강 수출량 많진 않아...현재 연 125만t 면제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일본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 일본 등과 논의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질문을 받아 이처럼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이번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관세 조치 발효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대미 협의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유럽연합(EU) 등 유사 상황을 겪는 국가 동향도 파악해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예외나 면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든 철강 생산국이 같은 경쟁 환경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포고문 서명식에서 후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많이 고려하겠다”(give great consideration)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도 일본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2년부터 일본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125만t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은 대미 철강 수출량이 많진 않아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철강연맹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일본의 철강 수출량이 3171만t이었으며, 대미 수출량은 120만t이었다고 전했다.

일본 철강업체인 JEF스틸 관계자는 “대미 수출은 한정적이어서 직접 영향은 경미하다”고 낮게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한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오른쪽), 후세인 왕세자(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가자 구상’ 수용 압박

백악관서 정상회담...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결·전후 구상 논의 ‘원조 중단’ 내세워 협조 요구...중동 대부분 반발 속 합의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은 찾은 압둘라 2세 국왕 및 후세인 왕세자와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을 함께 하며 휴전 합의 이행이 빠르다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가자 전쟁) 종결 및 전후 구상 등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 도착한 압둘라 국왕과 왕세자를 영접한 뒤 회담장으로 안내했다.

이날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미국 인수 및 개발 구상’(가자 구상)을 공개한 이후 아랍 국가 정상과 처음 대면 회담하는 자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공개한 가자 구상의 핵심인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과 관련해 요르단의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가자지구 인근 국가인 요르단과 이집트가 가자지구 주민 수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원조를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두 나라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미국은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에 요르단에 17억 달러(약 2조5000억원), 이집트에 15억 달러(약 2조2000억원)의 원조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주민 이주 구상에 대해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전체가 반발하고 있어 직접 관련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이 긍정 또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을 인근 국가로 이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서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해안 휴양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0일 방송된 포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가자지구 밖에 “아름다운 공동체들(거주지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사는 그 위험한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로 돌아올 권리를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자지구 밖에서) 훨씬 더 좋은 거주지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친(親)이란 예멘 반군 후티는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지키지 않고 가자지구 전투를 재개하면 자신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후티 수장 압둘 말리크 알후티는 이날 TV연설을 통해 “우리의 손이 방아쇠 위에 있으며 이스라엘 적군이 가자지구에서 긴장 고조 행위를 재개할 경우 우리도 그들에게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금리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美 연준 의장 ‘데이터에만 집중’... ‘신중 모드’ 재확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2%)를 웃도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연방 상인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제약적이고,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며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긴축 정책을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완화하면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을 저해할 수 있고 (반대로) 긴축 정책을 너무 느리게 너무 적게 완화하면 경제 활동과 고용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상당히 둔화했다”면서도 “연준의 2% 장기 목표에 견줄 때 다소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진단했다.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 달성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를 보였다.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8%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는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고용 확대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단약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책 긴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또 통화정책에 대한 연준의 권한을 방어하면서 백악관과 일부 연방위원들의 연방정부의 차입 비용 절감 요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정치에서, 선거에서 벗어나 있고, 어떤 정당을 유리하게 하거나 해치지 않으려고 하고 단지 데이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회의 7명 중 한 명을 해임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인하 결정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기대를 강화했다.

사카고선물거래소(CME)에 따르면 이날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5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4.50%로 동결할 확률을 전년 72%에서 이날 오후 79%로 상향 반영했다.

EU 자문기구 “딥시크 추가 조치 가능성”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로부터 추가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자문기구인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는 이날 열린 월례 모임에서 딥시크를 논의했다.

EDPB 대변인은 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여러 정보보호 당국이 이미 딥시크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으며 향후 추가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EDPB는 2023년 4월 AI 관련 집행의 협력과 정보 교환을 위해 만든 테스크포스(TF)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이 TF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MS가 지원하는 오픈AI의 챗GPT도 대상에 넣기로 했다.

EDPB 대변인은 “또한 위원들이 긴급한 사안에 대한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조치를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신속 대응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발효된 EU 일반 정보보호 규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날 회의는 이탈리아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정보 부족을 이유로 딥시크를 차단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정보보호 당국이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후 열렸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